



**한국블록체인협회**  
Korea Blockchain Association

# 보도자료 PRESS RELEASE

배포일 2020년 4월 28일 보도일시 2020년 4월 28일(즉시)

담당자 김재진 사무국장

TEL 02-6412-4778-9 FAX 02-6412-477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테헤란오피스빌딩 301호

## 한국블록체인협회, 특금법 시행령 TFT 구성

### - 오갑수 회장 “건강한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 조성되도록 당국에 적극 협조”

- 한국블록체인협회(회장 오갑수)는 28일 ‘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’(이하 특금법)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해 금융, 보안, 블록체인기술,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(TFT)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24일 공포된 개정 특금법의 시행일은 1년 후인 내년 3월 25일이며, 시행령은 그 이전에 마련될 예정이다.
- 협회는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이 심의되는 과정에서도 TFT를 운영하며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, 법사위원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. 당시 협회 의견으로 개정법에 반영된 내용은 ▲원안의 ‘가상자산취급업소’를 ‘가상자산사업자’로 명칭 변경 ▲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조건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규정 ▲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 미획득시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유예기간 설정 등이다.
- 특금법 TFT에 이어 이번에도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(前 금융위원회 상임위원)은 “시행령에서 정해질 내용 하나하나가 업계 전체와 개별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”면서 “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- 오갑수 회장은 “가상자산 제도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개정 특금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국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”이라면서 “이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조성돼 국가 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